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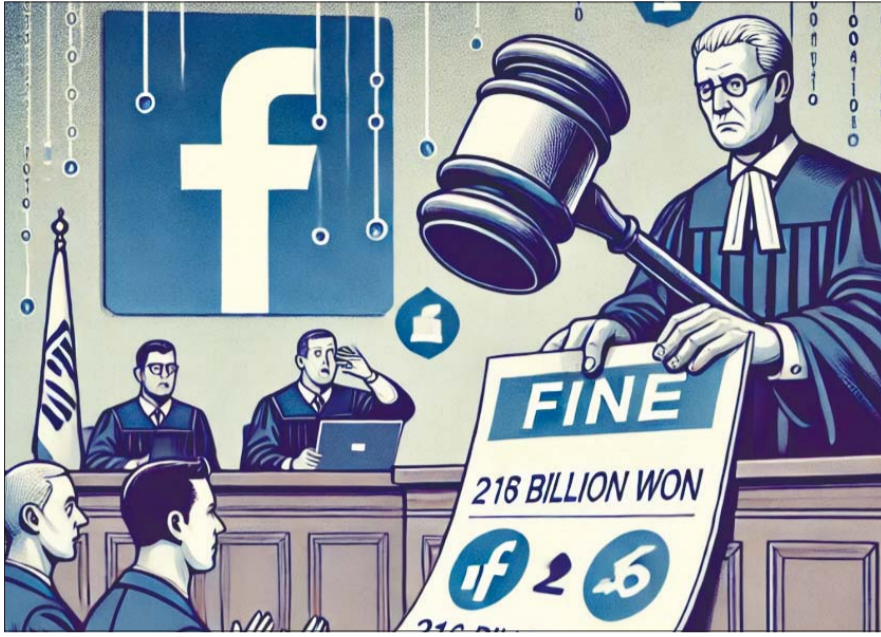
메타 과징금 사건 후폭풍... 韓, IT기업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

빅테크 '데이터 장사' 논란 확산
메타, 민감정보 수집에 216억 과징금
韓,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대두
내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등 투명성 제고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한국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빅테크 기업들의 '은밀한 데이터 장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빅테크 개인정보 침해는 '빙산의 일각'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뒤 광고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메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약 98만 명의 한국 사용자들의 종교관,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약 4000곳의 광고주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메타에 216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약 216억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메타는 이미 한국 내에서 4번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와 그 직전 해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74억300만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2021에도 이와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특히 메타는 이용자의 '좋아요' 클릭, 광고 반응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를 추출하고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 및 활용하는 위법 행위다. 또한 메타는 사용자의 열람 요구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 법률전문가는 "메타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

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IT 기업들도 안전지대 아니다

메타 사건을 계기로 국내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 SNS 플랫폼들 역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내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구글을 통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구인 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도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 및 활용해 큰 논란이 일었다.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추세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시작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이 시행되는 등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위반

시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LG유플러스 등 일부 IT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이버,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은 MS CI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리더'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사용자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활용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소상공인과 함께 가는 경쟁 확대 필요”

유상임 장관, 플랫폼 기업 대표 회동
소상공인 선택권 강화위한 상생 제안
카카오 등 상생협력 적극 동참 응답

포스코그룹이 6일 포스텍에서 2024년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사업의 주요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 논의하는 행사이다. 1989년을 시작으로 올해 3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지주사 출범 이후 포스코그룹 기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고,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를 비롯해 그룹 핵심 기술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기술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기수 포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6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에서 '조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코홀딩스 기술총괄, 전준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유병욱 포스코퓨처엠 사장 등 주요 그룹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항상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왔

다. 현재 회사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캐즘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그룹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인 원료업체들과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호주 원료 리오 틴토의 사이먼 패리 탄소중립 담당 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원료회사의 전략 및 철강사와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또 이날 초일류를 위한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자 고객-엔지니어-연구원-중소기업 간 협업 등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스코 기술대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술대상은 혁신상(2), 창의상(4), 도약상(3), 도전상(3), 총 12건으로, 광양 제강부 김관형 대리가 'Digital Twin기반, 전로 One-Touch 조업 기술'로 1등상을 대표로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혁신기술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

포스코그룹, '테크포럼 개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 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 장관은 플랫폼 회사 대표들에게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

큼 소상공인과 상생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 경쟁이 격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인하 등 경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와 플랫폼 정책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상생 방안들 보다 확대하겠다고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 부유식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LS전선이 고난도 기술력을 활용해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LS전선은 노르웨이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에퀴노르가 울

산 연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750MW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터빈을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

여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국제 인증까지 취득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다이내믹 케이블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달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중공업 'BIXPO'

미래 전력망 시스템 선배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서 K-전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력·에너지 산업 엑스포인 '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BIXPO 2024'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전시회 및 학술대회로 국내외 200개 기업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전력 산업 전문가가 참가한다.

/차현정 기자

KT '와이스팟'

"핫플레이스 여기 다 있네"

KT가 자사 혜택 플랫폼 'Y박스'에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는 '와이스팟(YSPOT)' 기능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Y박스는 데이터 선물 기능과 함께 다양한 혜택 정보를 안내하는 혜택 플랫폼이다. Y박스에 추가된 '와이스팟 코스 추천' 기능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식당·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준다. KT의 대학생 마케터 'Y퓨처리스트'가 직접 기획·취재해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한다. KT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와글와글' 서비스도 함께 추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